

“동시라고 감동까지 작은 건 아니죠.”



아이들이라고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친구들의 따돌림에 괴로워하고 가난에 부끄러워하고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아이들에게도 희로애락이 있는 것이다.

창작과비평사에서 출간된 운동재 시인의 동시집 《재운이》 안에는 다른 동시집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이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 1984년 인간사에서 초판이 나왔다 절판된 책으로 이번에 창비에서 고침판으로 낸 것이다.

또다른 동시집 《서울 아이들》에 실린 두 편의 시가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에 실리기도 한, 동시를 쓴 사람으로 더 많이 알려졌지만 운동재 시인은 현재 정신여중 교사이자 고려대 한국학 연구소 연구원, 《시안》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제작년 봄쯤인가 창비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운이》를 다른 출판사하고 계약한 적이 있냐고 물어오더군요. 《재운이》 안에 들어 있는 〈영이의 비닐 우산〉이라는 시를 시그림책으로 만들면서 보니 시집이 좋아 연락을 했다더군요.”

표제작인 〈재운이〉는 일 년 내내 옷이 한 벌뿐인 초등학교 5학년 재운이라는 남자아이의 운동회 총연습날 이야기를 담은 시다. 재운이는 달리기 계주 선수인데 운동복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장 선생님께서 따귀를 맞는다…

이렇게 예쁘고 좋은 것만을 노래하는 기존 동시와의 다른 점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과 사랑을 받았다. 시집의 추천글을 써준 이오덕 선생도 《재운이》를 많이 사랑해주신 분이다.

“이오덕 선생님은 처음엔 글을 통해 만났죠. 오래 전 일인데 의성 로타리 클럽에서 경북 의성 지역의 학생 백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오덕 선생님이 심사위원으로 오셨어요. 아이들이 글을 쓰는 동안에 교사들에게 문학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처음 뵈었죠. 그리고 1981년에 우연한 기회에 이오덕 선생님과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재운이〉를 보여드렸죠. 그런데 버스에선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나중에 무크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윤 선생만 괜찮다면 무크지에 그 시를 넣고 싶다고 그러시더군요. 한 7, 8개월쯤 지나서 〈황소아저씨〉라는 무크지에 〈재운이〉하고 〈산토끼〉 등을 실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시라고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나 읽는 가벼운 걸로 취급해버리는데 운동재 시인은 시를 잘 쓰는 사람이 동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 동화하면 성인 문학보다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쉽게 치부해버리지만, 오히려 아동문학이 더 큰 감동을 주기도 한다고 믿는 까닭이다.

“역량 있는 문학가들이 동시를 많이 써야 하고, 동시를 제대로 써야 문학이 제대로 선다고 생각해요. 《재운이》를 잊지 않고 기다려주셨던 분들도 그렇고, 책을 사기 위해 헌책방을 뒤진 분들도 그렇고,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본문 그림도 시와 잘 연결된 것 같아 기쁘구요. 앞으로도 좋은 시를 많이 써야죠.” 

양선희기자



운동재 지음 | 창작과비평사 | 188쪽 | 값 6,500원